



캄보디아 뿌리아 비히아 사원

Prasat Preah Vihear, Cambodia

박장식*

Jang Sik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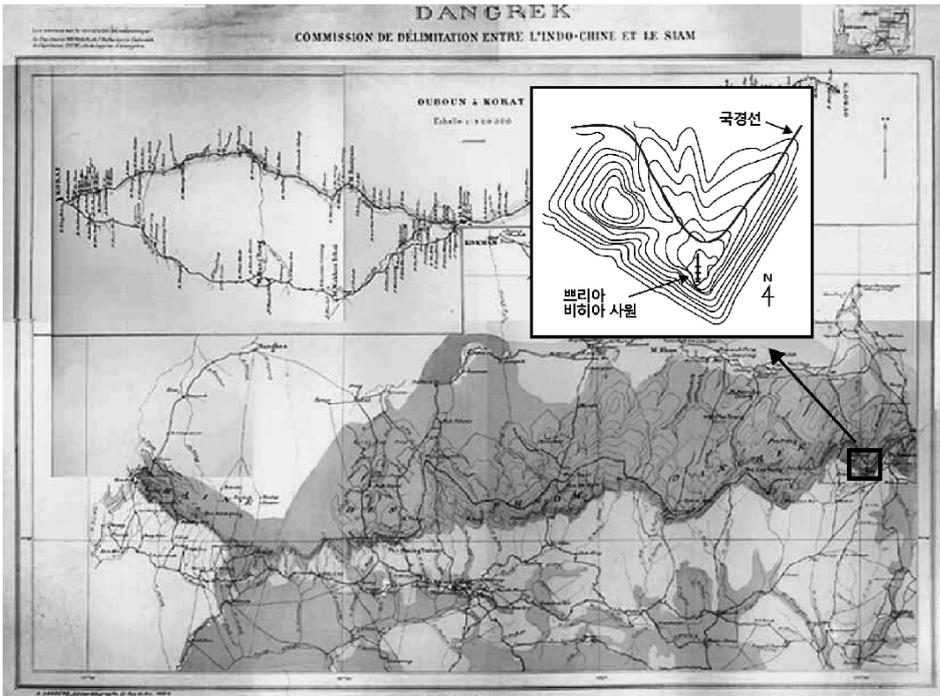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뿌리아 비히아 사원(Prasat Preah Vihear, 산스크리트어로 ‘신성한 사원’의 의미이며, 태국에서는 카오 프라 위한(Khao Phra Viham)이라 부른다)은 씨엠립 인근의 앙코르 유적지의 사원과는 달리 산 정상의 긴 경사면을 이용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실과 최근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도 널리 알려져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 당렉(Dangrek) 산맥의 산지 형세가 북쪽인 태국 국경 지대가 낮고 캄보디아 영토인 남쪽이 높은 지형의 모습이어서 국경선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다[1].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학 교수, jspark@bufs.ac.kr



[1]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위치. 이곳을 향하는 도로가 모두 포장되어 있어 씨엠립뿐만 아니라 깜뽕툼에서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904년 당시 캄보디아 보호국이었던 프랑스와 시암(현 태국) 간에 분수령을 중심으로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 체결 이후, 1907년 양국 공동 국경선확정위원회가 제작한 지도[2]를 근거로 뿌리아 비히아 사원은 1962년 6월 15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이 지역에 관한 귀속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고, 2008년에는 뿌리아 비히아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국의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하였다. 아직도 산 중턱에는 무장한 캄보디아 군인들의 초소가 구축되어 있다. 현재 무력 분쟁은 그쳤지만, 이 사원의 정상적인 북쪽 출입구인 태국에서의 사원 출입은 금지된 상태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과의 국경 충돌 이후 사원이 위치한 산의 중턱에 도로를 건설하여 캄보디아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씨엠립 및 깜뽕툼을 거쳐 올 수 있도록 접속도로의 포장도 완료한 상태여서 외국 관광객들도 이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사원 주변의 숙박시설은 시설이 낙후된 게스트하우스밖에 없어 씨엠립과 깜뽕툼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한다면, 충분한 관람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1908년 배부된 프랑스 보호령 캄보디아와 시암 간의 국경지도. 이 지도에서는 뻘리아 비히아 사원이 현 태국의 국경에서 제외되어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지도의 배부 이후에 태국 측에서 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법재판소는 뻘리아 비히아 사원의 캄보디아 귀속권을 인정하였다.

당렉 산지의 해발 657m에 건축되어 북남으로 이어진 사원의 총 길이가 800m에 달하는 뻘리아 비히아 사원은 그 가람 배치에 있어서 현 라오스 잠빠삭(Champasak)주의 푸까오(Phu Kao)산 아래에 조성된 왓푸(Wat Phu) 사원과 유사한 점이 많다. 실제 한 비문에서는 왓푸 사원이 조성된 푸까오산에서 채취된 사암을 이곳에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캄보디아 측에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이전까지 태국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로 포장에 완료되어 씨엠립에서 뻘리아 비히아 사원의 관문 마을인 창끄랑(Chang Krang)까지 210km로 넉넉잡아 3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그곳에서 사원 안내소는 북쪽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뻘리아 비히아 사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 밑에 위치한 안내소 [3]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오토바이(요금에 저렴하지만 위험하다) 혹은 지프(왕복 일인당 20불)를 이용해야 한다. 산비탈을 이용하여 길을

만들어 매우 가파르긴 하지만, 20분 정도면 사원의 첫 고푸라(gopura, 출입문)의 오른쪽에 도달한다. 태국 국경이 내려다보이는 중턱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캄보디아 국경수비대가 구축한 진지가 있고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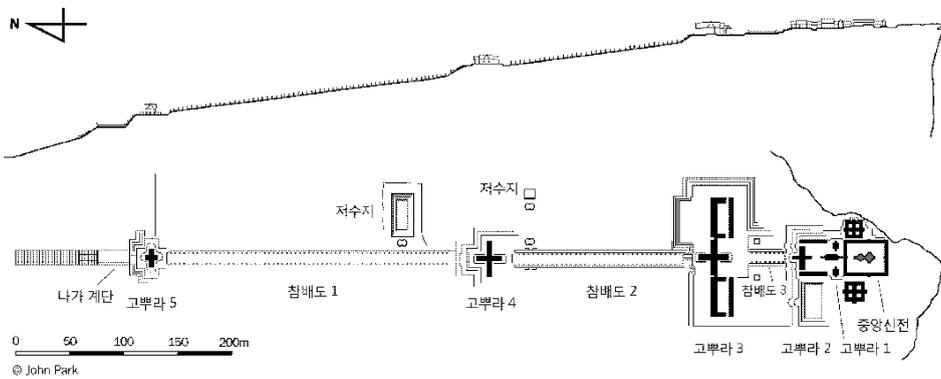


[3] 사원 안내소가 있는 곳에서 바라본 뿌리아 비히아 사원이 자리한 산의 형세. 캄보디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나, 왼쪽의 산비탈을 이용하여 사원 진입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아직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 John Park (이 글의 사진은 모두 필자가 촬영한 것임)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최초의 건축 시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불행히도 찾아볼 수 없지만, 5개의 비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원 건축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프랑스 비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원은 아마도 야쇼바르만 1세(재위 889-910년)의 시기에 건축이 시작되어 앙코르 시대의 전성기인 수르야바르만 2세(재위 1113-1145년) 때에 끝난 것으로 여겨져, 대략 300년에 걸쳐 개축과 증축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 사원의 건축에 관여한 국왕은 라젠드라바르만 2세(재위 944-968년), 자야바르만 5세(재위 968-1001년), 수르야바르만 1세(재위 1005-1050년), 우다야디뜨야바르만 2세(재위 1050-1066년), 하르샤바르만 2세(재위 1066-1080년) 등이다. 앙코르 시대의 사원 건축은 건축자인 국왕이 사망하거나 폐위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앙코르 유적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9세기에서 12세기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이 지니는 중요성이 어떠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

다. 또한, 앙코르 시대의 거의 모든 사원들이 평지에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해발 657m의 산지에 사원 건축을 시도했다는 것도 앙코르 시대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시바에게 헌정되었다고 여겨지는 뿌리아 비히아 사원에는 실상 비시누와 관련된 부조가 압도적이다. 물론 앙코르 유적지의 사원에서도 힌두교 신들의 혼합적인 모습이 표현되고 있지만, 현재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비시누에 관한 부조의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바가 아닌 비시누 사원의 느낌이 들 정도이다. 아마도 이것은 사원의 증개축에 관여했던 국왕들의 힌두신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세기 이 사원의 마지막 증축을 담당했던 수르야바르만 2세의 경우 앙코르왕의 건축자로 비시누를 숭배했던 데바라자였다. 중앙신전에서 발견된 한 비문(K.383)에 따르면, 그의 명을 받은 왕사 디바카라(Divakara)는 12세기 초에 이 사원에 와서 각종 의례와 보시를 베풀고, 사원의 증개축을 행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 시기에 비시누를 주제로 하는 부조가 대량 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4]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가람배치도

위의 가람배치도[4]를 통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산의 경사는 북저남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뿌리아 비히아 사원은 북쪽 입구 돌계단으로부터 남쪽 끝의 중앙신전에 이르기까지 약 800m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중앙신전이 자리한 남쪽은 가파른 절벽이다. 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높이를 고려하면 4단계로 나눌 수 있

고, 사원의 출입구인 고뿌라를 기준으로 하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국 영토인 북쪽에서 출입하도록 건축되었지만, 2008년 이후로 이곳은 폐쇄되었고, 캄보디아에서 산중턱에 건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고뿌라5의 오른쪽 길을 통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163개의 돌계단을 생략하고 곧장 고뿌라5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나가(Naga) 계단에서 사원 관람이 시작된다. 약 30m 길이의 나가 계단 양쪽에는 머리가 7개인 나가[5]가 북쪽을 향해 서있다. 12세기의 앙코르 유적지의 사원에서는 보통 나가 머리는 등판에 새겨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등판이 없다. 앙코르 시대 직전 롤루오(Roluos) 지역의 바꽁(Bakong) 사원의 출입구에서 볼 수 있는 나가 형상으로 아마도 이 계단은 사원 건축의 초기인 9세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 나가 계단의 나가의 형상. 나가의 긴 몸이 난간 없이 지면과 붙어있는 양식도 9세기의 것이다.

사원 출입문인 고뿌라 중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고뿌라5는 한눈에 가파르다는 인상을 준다. 계단이 붕괴 직전이어서 나무 계단을 임시로 설치해두고 있다. 이곳 고뿌라는 동서 길이가 조금 더 긴 십자가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보존 상태가 가장 열악하다. 하지만, 동쪽 문[6]에 장식된 박공벽(pediment)은 사원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상인방(lintel)

과 함께 감상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게다가 박공벽의 양쪽 끝에 있는 둥근 형의 마무리 장식과 윗부분의 다이아몬드형의 모티프는 10세기 후반 앙코르 유적지에 건축된 반띠 스투이(Banteay Srei) 사원의 중앙신전의 동쪽 고뿌라에서도 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7]이다. 또한, 박공벽의 기본적인 모티브로 여겨지는 부조의 기본 배경으로 사용되는 삼각형의 화관 문양은 여기 뻘리아 비히아 사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그러한 점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앙코르 지역 사원의 부조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크메르 건축예술의 감상법이다.

[6] 고뿌라5의 동쪽 출입문. 뼈대만 남아있어 불안해 보이지만, 동쪽 출입문의 정면은 온전하게 남아있어 놓쳐선 안 된다.



[7] 고뿌라5의 동쪽 문의 상인방과 박공벽의 부조. 여기에는 크메르 사원의 상인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험상궂은 형상의 괴물 깔라(Kala)가 화관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깔라는 해괴한 용모로 인해 악령이 사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여긴다. 또한, 상인방의 삼각형 문양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뿌라를 나서면 눈앞에 참배도1[8]이 길게 펼쳐져 있다. 폭 10m에 길이 275m인 참배도에는 경계석이 양쪽에 줄지어 있고, 포장석이 길

위에 놓여있다. 경계석의 높이는 약2m로 다른 사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높은 크기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돌출된 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참배도를 만들었다.



[8] 참배도1의 모습. 돌출된 암반층과 좌우 양쪽에 경계석이 보인다. 온전한 경계석은 몇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긴 참배도를 걸어와 고뿌라4가 보일 즈음, 왼쪽으로 사자상이 지키고 있는 인공저수지(바라이, baray)가 나타난다. 11개의 돌계단이 바라이 안으로 조성되어 수면이 낮아질 경우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크메르인들의 사원 주변에는 이러한 바라이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는 힌두교적 우주관의 상징성과 생활용수 공급이라는 양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거 이곳에는 사원 순례자를 비롯한 관리자 및 사제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이제 다시 참배도로 돌아오면 앞에는 경사가 매우 급한 지형 위로 고뿌라4가 등장한다. 고뿌라5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규모는 훨씬 크다. 앞에서 본 고뿌라에 비하여 이곳에는 구조물이 제법 남아있어 더 많은 감상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출입구의 상인방과 박공벽에는 거의가 깔라와 그 위에 정제 파악이 불가한 신상이 새겨져 있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다. 고뿌라4의 동쪽 두 번째 출입구에는 끄리시나(Krishna)가 머리가 6개인 나가 깔리야(Kaliya)를 진압하는 장면[9]으



[9] 상인방의 사각형 속에 끄리시나가 나가 깔리야를 제압하는 장면이 오른쪽에 확대되어있다. 출입문의 박공벽에 직사각형의 홈이 보이는데, 그것은 지붕을 만들기 위한 버팀목의 자리이다. 이것으로 당시에 고뿌라의 지붕은 사람이 아닌 목재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0] 박공벽의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비시누 신화의 중심 주제로 앙코르왓 사원의 동남쪽 대형 부조의 주제이기도 하며, 여러 사원의 부조에서도 만날 수 있다. 사진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배경에 붉은색이 채색되어 있어 원래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아래 상인방의 비시누 아난따 휴식 장면에는 비시누의 배꼽 위로 연꽃 즐기와 브라흐마의 탄생이 조그맣게 새겨져 있다.

로 앙코르 유적지의 바푸온(Baphuon) 사원의 부조에도 등장하는 주제이다. 남쪽 중앙 출입구에는 비시누 신화의 하이라이트인 영생의 묘약 만들기 위한 바다 젓기의 장면[10]이 박공벽에, 비시누의 아난따 위의 휴식(Ananta Shayana) 장면이 상인방에 새겨져 있다.

고뿌라4를 벗어나면 다시 참배도가 나타난다. 참배도2의 시작 지점 왼쪽으로 50m 정도의 거리에 작은 바라이가 있고, 약 150m 길이의 참배도를 걸어 올라가면 고뿌라3이 있다[11]. 고뿌라3은 정방형의 십자가 구조이지만, 동서쪽에 직사각형의 부속 건물이 있다. 앞의 양쪽에는 U자형의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부속 건물이 많아서인지 고뿌라3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고뿌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이곳은 아마도 의례를 위해 찾는 사제나 왕실 방문객을 위한 접대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11] 참배도2에서 바라본 고뿌라3의 전경. 이곳의 지붕은 목재로 만들어진 탓에 겉보기에는 건물의 손상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

출입구의 박공벽과 상인방에는 어김없이 각종 주제의 부조가 새겨져 있다. 특히, 중앙 십자가형 건물의 출입구에는 비시누[12]와 그의 화신인 프리시나(Krishna)[12]와 라마(Rama)[14] 및 시바[13]를 주제로 한 부조가 다채롭게 남아있어 이를 감상하는 묘미를 느낄 수 있다. 뿌리

아 비히아 사원이 시바에게 헌정된 것으로 여기지만, 이렇게 비시누의 장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00년 이상에 걸쳐 다양한 힌두교 신앙을 지닌 앙코르 시대의 국왕이 증축과 개축을 거듭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조에 사용되는 힌두신화의 모티브는 비시누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앙코르토포스의 중앙에 위치한 불교 사원인 바운 사원의 부조에서 힌두교 신화의 장면이 적잖게 등장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의 양상은 동남아에서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12] 고뿌라3의 북쪽 두 번째 출입구 정면, 박공벽에는 소떼를 보호하기 위한 고바르다나 산을 들어 올리는 끄리시나가, 상인방에는 가루다를 탄 비시누가 등장한다.



[13] 남쪽 두 번째 출입구의 정면의 박공벽, 시바의 승용동물(바하나)인 난디(황소) 위에 시바와 그의 아내 우마가 타고 있는 장면으로 앙코르 시대의 사원에서 시바를 주제로 하는 모티브(Umamaheshvara)로 널리 알려져 있다.



[14] 남쪽 첫 출입구의 정면의 부조. 박공벽에는 깔라 위에 물소를 타고 있는 야마(Yama)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는 죽음을 관장하며 남쪽 방위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아래쪽 상인방에는 깔라 위에 삼위의 신들이 앉아있는데, 중앙은 라마이고 그 오른쪽에 그의 아내 시따이며, 왼쪽에는 라마의 동생인 락시마나로 라마야나의 장면이다.

다양한 부조가 남아있는 고뿌라3의 감상을 마치고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마지막 참배도가 나온다. 참배도3은 34m에 불과한 짧은 길이이지만, 사원 입구의 고뿌라5 앞과 마찬가지로 나가가 양쪽에 정렬되어있는 나가 참배도이다[15]. 크메르 건축에 있어서 참배도에 나가가 등장한다면 이는 신성한 건물이 존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5] 고뿌라2에 올라가 고뿌라3으로 바라본 장면. 사자상의 앞으로 참배도3의 양쪽에 경계석과 나가의 모습이 보인다.

이제 이곳을 지나면 최종적으로 꺼께(Koh Ker)의 중심 사원인 뻬라 샷툼(Prasat Thom)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중앙신전이 나온다. 이곳은 전반부에 고뿌라2[16]가 배치되고 후반부에 고뿌라1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중앙신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뻬리아 비히아 사원의 가장 핵심적인 중앙신전은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며, 그곳은 바로 남쪽 절



[16] 참배도3에서 올라다 본 고뿌라2의 전경. 그곳을 올라가 곧장 연결되어있는 고뿌라1을 통과하면 중앙신전이 나타난다. 고뿌라2의 북쪽 출입구가 보이지만, 정면의 상인방과 박공벽의 부조는 붕괴되어 아쉽게도 볼 수가 없다.



[17] 고뿌라2의 왼쪽을 돌아 동쪽 부분에 이르면, 바로 깎아지른 벼랑 끝이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거리가 짧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뿐 눈앞에 펼쳐지는 캄보디아 북부 삼림지대의 웅장한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곳 아래쪽의 암반층의 사암을 채취하여 사원 건축에 사용했다고 한다.

벽의 아찔한 끝부분이다[17]. 캄보디아 북부지역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뿌라2에는 중앙의 십자가형 구조물 양쪽으로 L자형의 건물이 나란히 붙어있다. 이 역시 중앙신전의 참배를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고뿌라2의 남쪽 출입구의 양기둥에는 수르야바르만1세의 시대의 것인 비문이 새겨져 있지만, 뿌리아 비히아 사원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한다.



[18] 공중에서 촬영한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고뿌라3(뒷쪽)과 고뿌라2와 1이 붙어있는 중앙신전(맨앞). 고뿌라3의 양쪽에 U자형 건물이 길게 늘어서 있으며, 중앙신전 안에는 붕괴된 흔적이 보인다. © Huxley

안타깝게도 중앙신전 주변 출입문의 박공벽과 상인방의 부조는 손상이 심하여 관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깔라의 장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고뿌라2의 북쪽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 안쪽 뜰로 나오면 여기 저기 사암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앙코르 지역 사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모티브를 사용한 비시누 부조 조각이다[19]. 비시누의 네 손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의 둘레에는 천상의 무희인 압사라가 춤추고 있는 장면이다.



[19] 고뿌라2의 남쪽 출입구를 나오면 왼쪽 뜰에 놓여있는 비시누 부조. 형태로 보아 박공벽의 윗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며, 비시누 위에는 깔라와 신상이 새겨져 있다.

중앙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으로 긴 홀(hall)의 구조로 이루어진 고뿌라1을 통과해야 한다. 물론, 중앙탑을 중심으로 그 둘레가 회랑의 구조이기 때문에 북쪽의 고뿌라1 외에도 회랑을 통하여 동서 방향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회랑의 동쪽 출입구 박공벽에는 동쪽 방위의 수호신인 인드라가 새겨져 있다[20]. 일반적으로 고뿌라2에서 직접 중앙신전에 들어가기보다 고뿌라 입구에서 왼쪽으로 돌아 벼랑 끝을 따라 이곳 중앙신전의 회랑 동쪽에서 안으로 진입하는 것도 감상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



[20] 중앙신전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의 동쪽 출입구. 상인방에는 깔라 위에 코끼리(아이라바따)를 탄 인드라가 있다. 오른쪽 사각형 안은 상인방의 인드라 모습을 확대한 것.

고뿌라1을 통하든 동서쪽의 회랑 출입구로 들어가는 마침내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최종 목적지인 중앙신전에 도착한다. 안으로 들어가면 멋진 중앙탑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무너진, 그것도 완전히 붕괴된 중앙탑의 무거운 잔해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 중앙탑의 부속 건물 만다빠(mandapa)의 입구 부분은 남아있다[21]. 중앙신전의 모습은 붕괴되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다빠가 부속하는 것으로 짐작컨대, 앙코르 지역의 반띠삼레(Banteay Samre) 사원의 중앙탑[22]과 같은 인도 남부의 전형적인 힌두사원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띠삼레 사원(비시누 사원)도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대대적인 증축이 이루어진 수르야바르만 2세의 시대에 건축된 것이다.



[21] 중앙신전의 내부 전경. 왼쪽의 중앙탑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오른쪽 만다빠의 일부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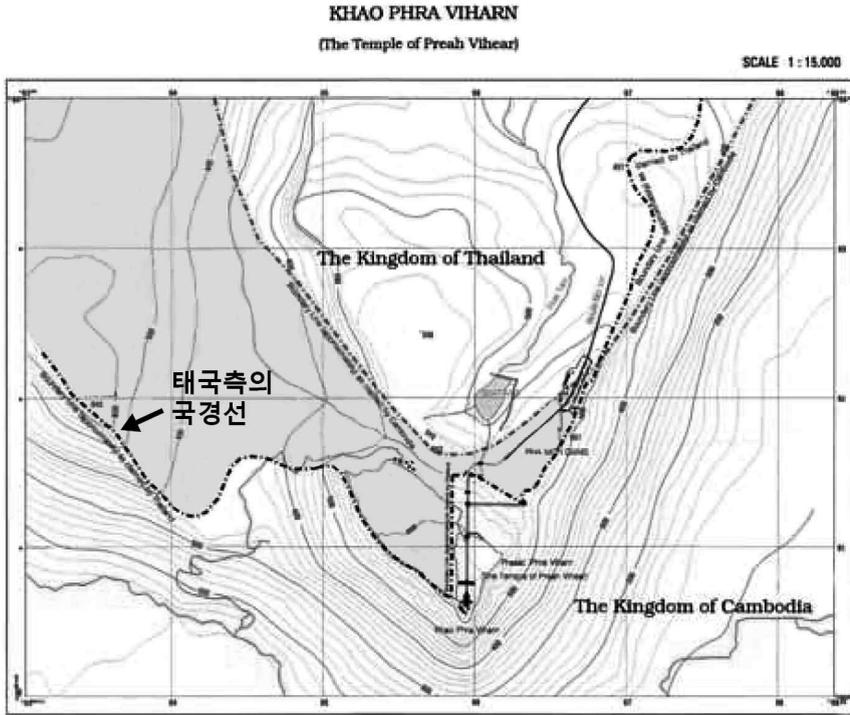
[22] 수르야바르만 2세의 시기에 건축된 반띠삼레 사원의 중앙신전의 모습. 왼쪽에 중앙탑이 보이고, 오른쪽에 중앙탑으로 연결되는 만다빠의 모습이 보인다.

뿌리아 비히아 사원이 시바에게 헌정된 사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곳 중앙신전 만다빠의 출입구의 상인방 부조 때문이다. 물론, 비문에 따르면, 시바 사원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만다빠의 상인방에는 확실한 시바의 모습이 나타난다[23]. 이곳의 시바는 그 유명한 춤추는 시바(nataraja)의 모티브이다. 팔은 10개로 보이며, 그중 맨 위의 양손은 머리 위로 맞잡고 있다. 앙코르 지역에서 시바에게 헌정된 사원의 경우 신전 안에는 링가가 모셔져 있거나 신전의 앞뜰에는 그의 승용동물인 난다가 반드시 존재한다. 아마도 여기에서도 그러한 구성은 짐작되지만, 중앙탑의 붕괴로 인하여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23] 만다빠의 상인방의 춤추는 시바의 부조. 깔라 위에 코끼리 머리에 시바가 서있는 모습이다.

중앙신전 주위의 고뿌라 부조들은 대개가 심하게 손상된 흔적이 엿보인다. 남아있는 부조들의 보존 상태는 극히 열악하다. 그래서 중앙신전의 회랑 북쪽 출입구 상인방의 끄리시나와 깔리아의 장면(고뿌라4에서도 보았던 것) 외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중앙탑의 붕괴 잔해물과 만다빠를 살피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회랑을 살펴보는 것으로 중앙신전의 관람은 의외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시시하게 끝나게 된다. 다만, 벼랑 끝에서 탁 트인 산 밑의 풍경을 잠시 즐기는 것으로 아쉬운 맘을 달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800m의 긴 사원을 살펴본 것으로 이곳의 매력은 충분한 것 같다. 고뿌라의 곳곳에는 여전히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시간 부족으로 다 살펴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 더 아쉬웠다.



[24]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태국 측이 일방적으로 분수령을 기준으로 뿌리아 비히아 사원만을 제외하고 새롭게 확정한 국경선이 그려진 태국의 지도

하산하는 길에 캄보디아 수비대의 진지와 군인들을 다시 마주한다. 사실 사원의 몇 군데에는 총알 자국이 있기도 해서 국경 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긴장감이 내내 느껴졌다. 태국 측의 출입이 중단된 이후 이곳은 사실상 적막한 분위기에 놓여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귀속 문제를 결정했다는 해석으로 태국은 그 이후 새로운 국경선을 그은 지도[24]를 작성했다. 캄보디아에서 올라온 길은 이 지도에 따르면 태국 영토가 아닌가?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귀속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1907년 지도의 국경선을 인정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여기는 것 같다. 이 사원이 지니는 엄청난 문화적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여 양국 간의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